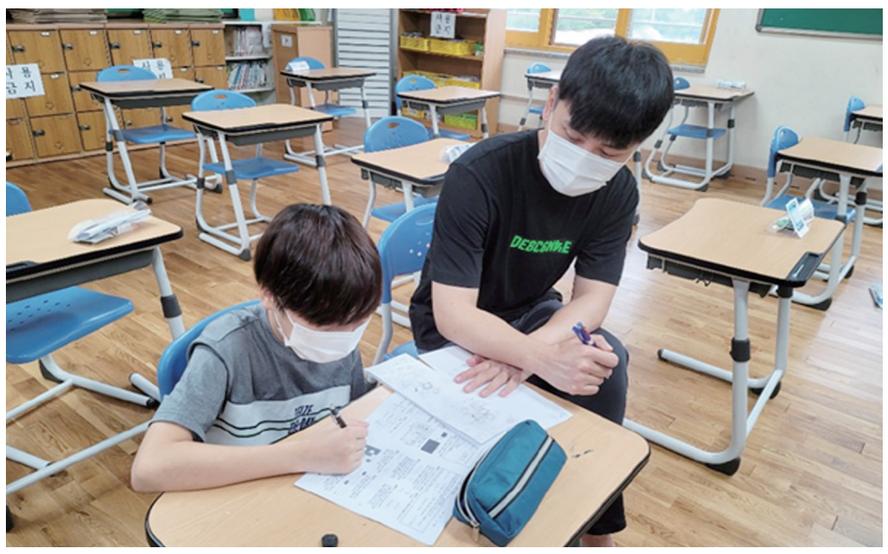
광주 용두초, 코로나19 극복 위해 교육공동체 힘 모아

학습활동 공백 생기지 않도록 학년별 특색살려 교육활동 총력
원격수업용 학습꾸러미 제작·꾸러미 목록-설명 자료 제공
교육공동체 힘 합쳐 학생들 학습격차 해소위해 맞춤형 교육



용두초가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년별 특색을 살려 교육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용두초는 교육과정을 분석해 원격수업에서 사용할 학습꾸러미를 제작하고, 학생들이 쉽게 활용하도록 꾸러미 목록과 설명 자료를 제공해 왔다.

지루할 수 있는 원격수업을 과학꾸러미 등을 통해 학생 활동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가 힘을 합쳐 학생들의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대면 보충학습, 상담활동 등 학년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모든 것이 낯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위한 학생·학부모 상담을 진행했다.

교사들은 원격수업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매일 전화 및 문자 상담 등을 통해 학습 진행을 도왔다.

또 원격수업 중 학생들이 성취감을 가질 수 있게 학습에 대한 지속적 피드백 및 긍정적 독려 등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1학년 한 교사는 "가정에서 올리는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과 고사리 손, 삐죽한 머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립다"며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평범했던 일상을 그리워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투정도 쓴 소리도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2학년 학생들을 위해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고, 학생들이 교과와 관련된 그림책을 통해 학습지를 해결하게 하는 등 학생의 사고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원격수업 운영에 반영하고,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3~4학년 학생들을 위해 학생 수준에 맞는 과목별 수업을 설계했고, 실제 촬영하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원격수업 영상을 자체 제작하고 있다.

학교 여건에 맞는 학생 맞춤형 수업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학습 결손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5~6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직접 악기를 연주한 후 녹음을 통한 동영상을 만들고, 원어민 교사와 협력해 수업자료를 제작하는 등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평가 문제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어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학생 맞춤형 워크북을 제작하고, 학습 콘텐츠의 단순 청취를 막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게임을 통해 영어 표현을 익힐 수 있게 했다.

용두초 임공진 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들의 안정된 학습 활동을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힘쓰고 있다"며 "몸은 멀리 있더라도 마음은 가까이 있는 마음 따뜻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목포교육청, 마을 기반 체험형 프로젝트 수업

7개 학교 30학급서 진행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갑수)은 9월부터 7개 초등학교 30학급에서 '학교-마을강사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미 1학기에 계획되어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7월중 3일간 '학교-마을강사 공동체 프로젝트 설명회'를 거쳐 운영 주체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프로젝트 수업 운영 현장 노하우를 참가자 전체가 공유하기로 약속한 가운데 시작되었다.

또한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와 마을(학교) 강사를 중심으로 '학교-마을강사 연계 프로젝트 TF팀'을 구성하여 마을강사와 함께하는 교수-학습과정안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 공동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등 마을강사와의 협력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준비하였다.

특히, 교육지원청에서는 기존 마을강사가 주도하는 교육기부나 방과후 활동과는 달리 학생들이 마을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교사들과 함께 2학기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활동내용을 재구성했으며, 마을학교, 진로체험처,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처를 통해 학교에서 요청한 맞춤형 마을강사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등 교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우리 마을의 생태지도 만들기'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한 백련초 이○○교사는 "학생들이 우리 마을에 서식하는 식물들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껴보는 소중한 경험의 시간되어 매우 좋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학교 교육에 대한 해답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조금씩 찾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전남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비대면 대입 상담 실시

영상회의시스템 활용 온라인 상담 서비스 제공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16일 전남 지역 학교 밖 청소년 42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대입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민선3기 장석웅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설치된 권역별 진학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전남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해 운영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202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 대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별 맞춤형 진학상담을 제공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면대면 상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구축한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운영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의 검정고시 성적을 대학 별 성적 산출기준에 따라 변환해 제공해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입 관련 정보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남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의미 있는 지원이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교육청은 권역별 진학지원센터 주관으로 지역사회 및 학교와 연계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지원하는 맞춤형 진로진학프로그램을 120여 회 이상 운영하는 등 대입 관련 현장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정환 기자

순천대, 대학일자리센터 진로 취업 특강

'중견기업 바로알기'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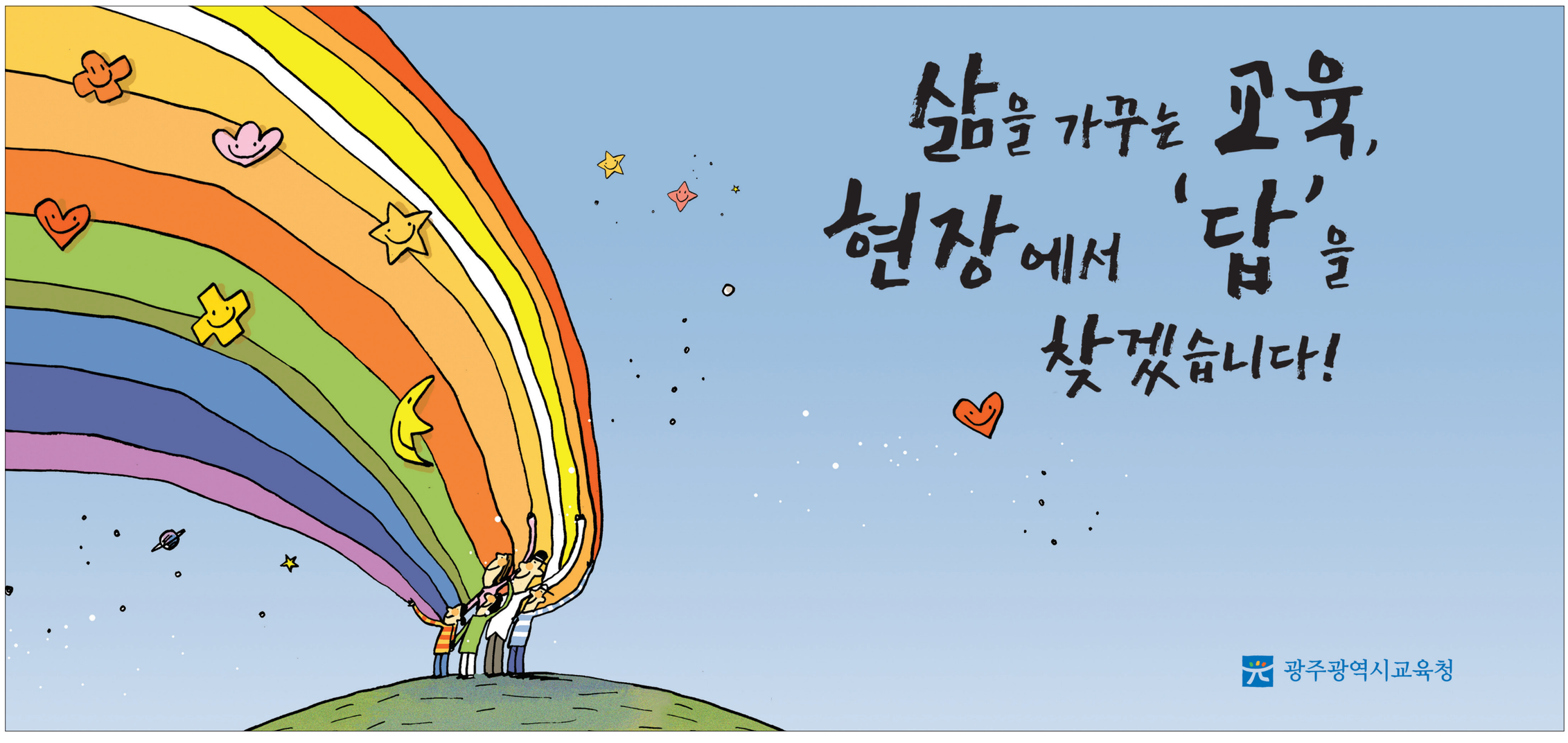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 대학일자리센터는 지난 8월 27일 취업을 준비하는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2020 중견기업 바로알기 특강'을 비대면으로 운영하여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특강은 중견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기업정보 및 취업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기업 선택 방법 및 취업 준비 사례를 나누는 비대면 멘토링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고자 개최하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한 형식으로 비대면 실시간 강의로 이루어졌으며, 총 82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중견기업 탐색 △중견기업 취업전략 △다양한 Job-Portal 정보 등을 공유하였다.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은 "중견기업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던 개념과 정보들을 정리하고, 평소에 몰랐던 다양한 분야를 접하게 되어 취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천대 양숙향 대학일자리센터장은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중견기업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기업정보를 습득하여 경쟁력 있는 취업 준비로 취업에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청년들의 진로·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멘토링 방식으로 9월에 '온라인 진로캠프'와 '취업자신감캠프'등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